

구속사 Redemption

■ 제 10 장 구속사의 첫 단계_9 (211208)

1. 구속사의 3 단계: 오실, 오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

- 1.1. 첫째 단계: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6 시기)
 - 1.1.1. 제 1-2 시기: 인간의 타락~홍수~아브라함까지
 - 1.1.2. 제 3-4 시기: 아브라함~모세~다윗까지
 - 1.1.3. 제 5-6 시기: 다윗~포로기~그리스도의 성육신
- 1.2. 둘째 단계: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부터 그의 부활까지
- 1.3. 셋째 단계: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세상의 끝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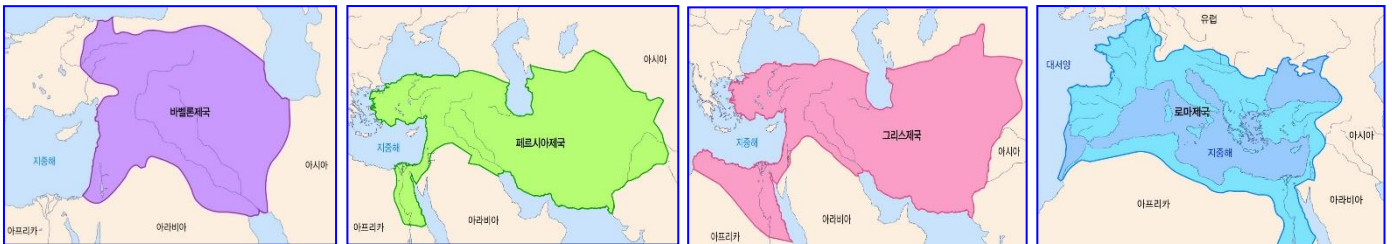
2. 예언이 주목을 받게 되는 시기

- 2.1.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수단
 - 2.1.1. ()의 방식
 - 2.1.2. ()의 방식: 역사가 결여 → 예언이 일어남
- 2.2. 제 6 시기는 역사와 예언이 주어지지 않는 시기
- 2.3. 이 시기 사건들은 세속 역사 속에 보존



3. 엄청난 ()의 시기

- 3.1. 세 번에 걸친 제국의 붕괴: 바벨론→()→()→()제국
 - 3.1.1. 다니엘의 환상(단 2:32-35)
 - 3.1.2. 겔 21:27—세 번이나 반복되는 "엎드려짐"에 대한 언급
 - 3.1.3. 계 8:13—세 번에 걸친 "화"에 대한 언급



3.2. 큰 격동의 시기

- 3.2.1. 최고 지배권이 다윗 가문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
- 3.2.2. 결국 이 지배권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짐(단 2:35)

3.3.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고함

- 3.3.1. 해산하는 수고(계 12:2); 피조물의 탄식(롬 8:19-22)
- 3.3.2. 다음 제국으로 넘어갈수록 영광의 크기가 커짐
- 3.3.3. 더 큰 영광과 평화의 나라를 기대하게 됨(단 2:44)

4. 격동 속에서 교회를 보존하심(시 46:1)

4.1. 대략 ()년에 해당하는 시기

- 4.1.1. 이스라엘 백성을 400 년 동안 애굽에서 보호하심
- 4.1.2. 바벨론 포로 이후 600 년 동안 격동기에 보호하심
- 4.1.3.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 년 동안의 기간

4.2. 이방 민족들의 ()의 대상

- 4.2.1. 바사의 아하수어로 왕 치하에서(에 3:6)
- 4.2.2.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마카비 상권 1:41-62)
- 4.2.3. 로마 제국의 지배: 예수님 당시의 유아 살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대교를 박해하다

1:41 임금은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42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43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44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대인들이 자기 고장에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45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46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47 이교 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칠 것. 48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49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50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51 임금은 자기의 온 왕국에 이렇게 모든 칙령을 내리고, 온 백성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세웠다. 또 유다의 성읍들에는 각 성읍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52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율법을 저버리고 감독관들에게 동조하여, 이 땅에서 나쁜 것들을 저질렀다. 53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숨을 곳을 찾아 온갖 피난처로 떠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54 백사십오년 키슬레우 달 열닷셋날, 안티오코스는 번제 제단 위에 향패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에 제단을 세우고, 55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56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 버렸다. 57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58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성읍에서 달마다 눈에 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59 매달 스무닷셋날에는 번제 제단 위에 있는 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다. 60 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61 그 젖먹이들은 그들의 목에 매달았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이들까지 매달았다. 62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63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 갔다. 64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5. 하나님의 구속 사역

5.1. ()에 대한 민족의 욕망이 고침을 받음

- 5.1.1. 안티오쿠스 박해 시대만큼 강력하게 신앙을 지킨 때는 없었음
- 5.1.2. 모든 이방인의 우상숭배의 근절을 예시함

5.2. 이스라엘 교회의 () 영광이 사라짐

- 5.2.1. 600 여 년간 다윗 가문의 국가적 왕권 제거
- 5.2.2. 성전, 십계명 돌판, 우림과 둠뎀의 분실(대하 5:10)
- 5.2.3. 제단의 불이 꺼짐
 - A. 모세의 성막과 제단(레 9:24)
 - B. 솔로몬의 성전과 제단(대하 7:1)
 - C. 불이 임하여, 그 불을 보존함(레 6:13)

5.3. 이 시대의 역사적 영적 어둠은 ()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함(롬 3:7)